

韓廷玉氏의 『神卽社會禮』論에 對한 一考(四)

鄭景玉

二, 宗教의 社會的 價値

氏는 먼저 社會意識과 倫理觀念사이 에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을 指摘하였다. 氏의 理論을 좀 細密하게 分析하여 보자.

一, 氏는 먼저 『善이란 社會關係를 泯나서는 無意味하다』고 말한다. (第三回 第四段十六-十八行) 勿論 여기에 말한 『善』이란 말은 道德的 價値만을 가라친 것이겠다. 物과 物의 關係에 잇서서 그 關係自體안에 目的的 觀念이 업기 때문에 善이란 範疇를 쓸 수 업다. 人格과 物의 關係에 잇서서 아름답다 귀하다 값이 있다 하는 것은 評價的 人格을 必須條件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機械的 價値에 不過하다. 참된 價値는 人格者의 自由로 읍고 意識的인 活動에만 있는 것이다. 이 意味에 잇서서 價値觀이란 구태여 區分하자면 두 가지 方面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재로 個我의 人格이 完全히 發達할 機會를 주는 모든 行動 動機結果를 善이라고 하고, 둘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關係에 잇서서 合理的이며 效能이잇는 態度와 行動을 善이라고 부른다. 합스와 가튼 사람은 個我란 本能的으로 惡한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社會의 制口을 주어서 強制로라도 社會에 服從하게 할 것이라고 하고 스펜서는 個我를 위한 것은 惡이오. 社會를 위한 것은 善이라는 뜻으로 利己와 愛他를 갈르는 것이 倫理의 根本問題이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自我의 存在와 本性和 運命을 그러케 咀呪할것이 업다고 본다. 自我를 위한 것에도 善이있다. 社會를 위한 것에도 그릇된 것이 잇을 것이다. 통트러 말하자면 善이니 惡이니 하는 말은 社會的 規範이란것보다 人格的 規範이라는 것이 옳을 것갓다.

2. 다음에 氏는 主張한다. 『社會는 그 自體의 存在繁榮에 合口되는 思想行

動을 命名하여 善이라고 한다』고 (第 三回四段三十五行-三十七行)또 氏는 말하였다. 『道德은 社會 中心 思想의 發露에 系한 社會的 約束 卽 社會禮의 『한 生活手段』으로의 社會意識인것이외다』 하고(第 四回二段十五行-十九行)또 그는 말한다. 『社會全員の 同一要求, 同一努力, 同一承認에 系한 約束-이 約束이 卽 □□道德이며 善이며 社會意識입니다』 라고 (第 四回四段二十五行-)

그리고 『社會各員의 그 結束에 對한 態度 卽 그 結束을 □重하며 支持하는 態度가 實 良心이다』 (第 四回五段一-五行)라고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社會生活을 하는 동안에 各人의 心意內에, 社會 中心 思想 卽 社會를 支持하며 □□하는 『本能』이 發生하였다고 한다.(第 四回三段十一-十四行) 그리고 外的으로 考察하여서 社會란것은 善의 創造者이며 支持者로서 個個人間에게 絶對無上의 命을 나리어 服從하게 한다는 것이다.(第 五回一段五-七行)

氏의 倫理觀은 한마대로 말하다면 합쓰 社會契約說에 갓가운 것이라고 하겠다. 價値判斷이란 社會的으로 이러나는 것과 社會的으로 要求되는것의 一表現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잘 아는바와 가티 價値를 사람의 心的 反應 如何로서 判定하라는 心理學的 倫理觀에 對照되는 社會的 倫理觀은 社會判定와 社會意識이 個人의 思想과 行動을 支配하며 또 支配를 바더야 한다는 見解이다.

現代 倫理 哲學者의 大部分은 氏와 가티 道德觀念과 行動의 社會化傾向을 是器할것이다. 原始的 部族生活에 잇서 서는 經濟條件이나 血族의 關係나 統治□□에 잇서서 集結生活을 可能하게 하였으며 社會的 連帶觀念을 가지고 社會全體에 忠誠하여서 安□處을 求하며 共同한 經濟的 利益을 위하여서 協□하기로 하였든 것이다. 그리하여서 마치 우리의 有機體的 個體안에 잇는 機器이나 衝動力 中에서 個體를 保存하게 하며 增進시킬만한것은 남어 잇서서 發達하는것과 가티 社會에 잇서 서는 社會의 機體的 □함에 利益되는, 思想과 行動과 制度는 保存되며 發展되고 權□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客觀的으로 考察하면 道德은 社會의 保全價値의 □슴이라고 할스 잇슬 것이다. 그리고 主觀的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이러한 集團的이며 協同的인 生活에서 어든 價値에 執着하는比例로 個性의 完全하고 自由스러운 發展을 이르게 되는 것을 일음이다. 完全人은 完全한 社會人이 되는데 잇고, 完全한 社會人은 完全하고 自由스러운 人格을 發揮할수잇는데 잇슬 것이다.

